

# 광주~장성·나주 광역도로 신설 추진

### 광역교통위 '광역교통 2030'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확대 광주 용두~장등 북부순환도로 신설도

장성과 나주를 축으로 광주를 잇는 광역도로 신설이 검토되고 산단 접근성을 높이는 혼잡도로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3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시청~광주역~시청을 순환하는 41.8km 길이 도시철도 2호선을 2025년 완전 개통하는 것이 핵심 사업으로 꼽혔다.

'광역교통 2030'은 향후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광역교통의 미래모습을 담은 기본구상이다. 외곽순환

고속도로 단절 구간인 광산구 분량~장성진원(16.2km) 공사를 2022년 완료하고, 사업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 금천~대덕(49.5km)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착공 여부가 결정 난다.

광주 하남에서 장성 삼계까지 15.4km 구간 광역도로를 확장하는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 송정과 나주시 경계 간 광역도로 확장 사업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상무지구~접단 산단(4.6km), 월전동~무진로(6.3km) 혼잡도로 개선 사업은 설계를 완료해 각각 2026년, 2023년 준공

을 목표로 추진된다.

용두~담양(1.6km), 광주 북부 순환도로(용두~장등 6.7km) 혼합 개선 사업도 각각 도로 확장과 신설 방식으로 2021년, 2022년 준공 목표로 진행 중이다.

광역교통위원회는 해당 사업들이 완료되면 광주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현재 7.1%에서 2030년 12.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승한다 해도 광주의 수송분담률은 가장 낮다.

전국 대도시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수도권 46.3%, 부산·울산권 23.1%, 대구권 25.5%, 대전권 11.6%다.

한편, 광역교통위가 이날 내놓은 '광역교통 2030' 구상에는 잘못된 정보가 담겨 있다. 자료에서 광역교통위는 광주송정역 환승센터가 현재 설계 중이며 내년 착공

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사업은 지난해 백지화됐다.

광주송정역 주차장 부지에 광주시, 코레일, 서희건설 측이 복합환승센터(버스·지하철·고속철 환승) 신축을 추진했으나 사업자 자금부족 등이 원인이 돼 지난해 5월 사업이 최종 무산된 것이다. 대신 오는 2021년까지 현 주차장 부지에 지상 6층 규모로 차량 16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 건립 사업이 코레일 주관으로 추진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2018년 5월 백지화됐다. 2차레나 광역교통위에 공문 등을 통해 알렸으나 결과적으로 틀린 정보를 담은 자료가 나오게 됐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매실·무화과·복분자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남도, 8개 과수품목 홍보

전남도가 11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실, 무화과, 복분자 등 8개 과수 품목 홍보에 나섰다.

품목별 가입 기간은 매실, 자두, 포도, 복숭아, 오디, 복분자, 무화과는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유자는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다.

오디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영광, 장성 지역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남 모든 시·군으로 가입 지역이 확대됐다.

이는 전남도가 가입 지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비는 1180억원이다.

10월 말 현재 7만25농가가 11만3598ha를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다.

이는 자연재해 빈발로 농가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으로 80%를 지원한다. 농가는 산출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전에서는 보험 가입 후 자연재해로 3만298농가가 1466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올해도 연이은 태풍 피해 등으로 보험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제공 전남여성일자리 박람회 224개 기업 참여 목표로 열려

전남도는 2019년 제4회 전남여성일자리 박람회를 31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을 바라는 도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200여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목포 한국노인전문요양원, 장흥 (주)현대푸드, 강진 두원푸드, 해남 SK매직(주), 영암 썬카운티 주식회사, 무안 (주)금화, 완도 러브케어양양센터, 진도 (주)두잉씨앤에스 등 224개 기업이 참여했다.

1대 1면접을 통해 박람회 현장에서 인재를 채용하고, 일부 기업은 이력서를 접수해 박람회 이후 면접을 통해 채용하게 된다.

박람회에서는 또 인재채용관, 컨설팅관, 여성창업관, 여성 일&미래관 등 4개관을 운영해 구직 여성에게 일자리 정보와 구직 기회를 제공했다.

박람회에는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김종식 목포시장, 전경선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장과 도의원, 구인 희망기업과 경력단절여성, 청년 실업자, 여대생, 결혼 이민자 등 취업 희망자 1700여 명이 참여했다.

전남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열어 435명에게 일자리를 연계했다.

또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7240명에게 취·창업 기회를 제공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개막 2019 청소년 비즈쿨(BizCool)페스티벌이 지난 31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행사에 참가한 전국 136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직접 만든 물건과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역업체 참여 확대

### 광주시, 1단계 시공사 6개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된다.

광주시는 31일 오후 도시철도건설본부 회의실에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시공사 6개 업체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지역건설 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지역건설 산업체의 장비 사용 활성화 ▲지역민 우선고용과 지역 생

산 자재 구매 및 사용 ▲현안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모두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이 가운데 1단계 공사는 총 사업비 5685억원이 투입돼 시청에서 월드컵경기장, 백운광장, 조선대를 지나 광주역까지 약 17km 구간에 2023년까지 정거장 20곳과 차량기지 1곳을 건설한다.

1단계 공사 1공구는 롯데건설 등 3개사, 2공구 한신공영 등 2개사, 3공구 태영건설 등 2개사, 4공구 한라 등 2개사, 5공구 한화건설 등 2개사, 6공구 경남기업 등 4개사 등 모두 6개 공구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침체한 지역 건설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산불 예방 '대책본부' 가동

### 다음달 15일까지

전남도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해 산불 예방 홍보에 나선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가을철에 발생한 전남지역 산불은 21건, 피해 면적은 2.58ha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산불 발생 요인 차단을 위해 산별 교육 전문가를 활용해 공무원, 산별 진화대원, 산림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별 방치 교육을 나선다.

농산 폐기물·쓰레기 소각이 많은 오후 시간대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1340명이 기동 단속에 나선다. 적발된 불법 행위자

에겐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활용해 산림 인접지 소각 위험이 높은 지역에선 영농 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인화물질 900t을 사전에 제거해 소각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최근 시·군,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소방, 경찰 등 26개 기관과 함께 가을철 산별 대응 협력회의를 열어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확고히 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초동진화용 산별 임차헬기 7대를 권역별로 배치하고, 효율적 진화를 위해 시·군별로 전문화된 기계화 산별 지상진화대 1개 팀(10명)을 운영해 산불 진화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오늘 '점자의 날' 기념식

'훈맹정음(訓盲正音)' 반포 93주년을 맞아 '점자의 날' 기념행사가 1일 오전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다. '점자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1888-1963) 선생이 한글 점자를 만들어 반포한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전남도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이 주최하고 전남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에게 세상과 소통의 길을 열어준 한글 점자의 탄생과 그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다.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이 서로 한걸음 다가가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공연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시각장애인 점자 받아쓰기, 일반인 점자 빨리 찍기, 백일장 등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어울림 마당이 펼쳐진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여자 13명에게는 시상금이 주어진다.

전남도는 2013년 제87회 점자의 날 기념식을 처음 개최한 이래 매년 행사를 지원해오고 있다. 점자 보급과 활성화에 힘쓰고 시각장애인 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2명에게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